

|| 말씀 노트 ||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히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레 14:20)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13:46)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막 1: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목회와 삶 || 뜻대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자

연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향으로 회귀한 연어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들은 바다에서 강 줄기를 거슬러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도 개의치 않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산란으로 태어난 연어들 가운데에서 4% 미만의 연어들만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문학가 존 버니언(John Bunyan: 1628-1688)이 지은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에서 주인공 크리스천(Christian)은 장차 망할 악한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천은 들판에서 책을 한 권 발견하고 그 책에 쓰여 있는 장망성에 대한 심판 경고와 하늘 도성과 영원한 삶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순례자의 길 가운데에서 주인공 크리스천(Christian)은 그의 길 친구 믿음(The Faithful)이와 함께 '허영 시장'(Vanity Fair)에 도달하게 되는데, 허영 시장의 주인은 바알세불(Beelzebub)입니다. 그리고 허영 시장에서는 집, 땅, 명예, 생명, 은, 금, 진주 등과 같은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순례자의 길 위에서는 무가치한 물건들만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의 길 위에서 허영 시장은 세상의 유혹이 가장 강력히 임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때에 전도자가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크리스천을 조언하는 이유는 순례자의 길에서 세상의 유혹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뜻대를 정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뜻대를 정하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빌 3:14)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